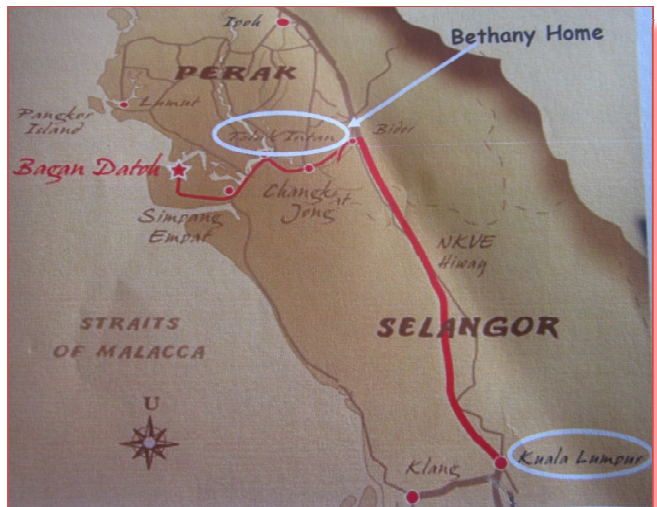




4월,

빛나는 우리의 무대  
기대하시라

그곳은 바로



잠



지은이가 보는 문기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  
영국인 봉사자라 축구를 보다가 화장실에서 잠들.  
선글라스를 끼면 양서방으로 변신함  
항상 여자단원들에게 바보라며 구박함  
앞에서는 구박하지만 뒤에서 은근 챙겨줌.  
고마운 나의 스파링상대!!!

관



예언이가 보는 지은아

사회복지학과가 아닌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상형인.  
말레이시아에서 진지하게 국제결혼을 생각중인.  
모든 변수를 생각하는 우리팀의 유일한 꿈꿨이.  
가끔 응?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나의 귀염둥이.

보고또봐도 더럽게 생긴 발을 가짐.  
여성단원들보다 그림 잘그림  
언제나 내겐 친절함 그대.  
매운 그대의 손. 느껴보면 알수있음  
딱히 특성은 없음 대냐하면 아직 어색함

문기가 보는 무중



자극하면 모기로 끝까지 해내서 우리를 놀래키게함, 최근 맨집 향상중.  
모든 망고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들의 망고여신  
자기가 시키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며 괜한 자부심이 강함.  
동네에서 엘리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음  
간호학과 해이팅게임을 기대했으나 딱히...  
자체필터링 하는 능력을 지님.  
안양1번가 출신이나 속이기 쉬움.

진아가 보는 예언이



무중이가 보는 진아

코에 뼈가 없어서 자유자재로 변함  
날씬하긴 않지만 들썩함  
우리팀의 만능 통역사&리더!  
귀가 얇아 쉬움.  
중국계친구들에게 특별히 이쁨받고있음  
먹을 때 가장 행복해 함. 집중력 200%.

## 라온아띠 5기 베다니홈 도착!



3월 29일 KL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무사히 베다니홈으로 왔습니다. 시뻘뻘하게 둘러싸여있는 베다니홈은 생각했던 것 보다 크고 다양한 아둥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도 시키는 사람이 없고, 단지 up to you 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후 2주정도는 뭘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우리가 이곳에 필수한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전에 우리가 하고싶은 것에 대해 준비를 해서 시야기를 한 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클레이수업은 신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수업활동 뿐만아니라 가드너, 주방보조 등과 같이 생각치도 못했던 활동들도 합니다. 베다니에서 활동이 한달째 접어드는 순간, 우리는 첫날 소리를 감당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Bethany Home! Be Happy! Enjoy!**

-김지은



### 정원일

"수업하는것만이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Volunteer? 베다니홈에 오기 전 당연히 class 수업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우리는 각종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Class, 부엌일, 카페청소를 하며 volunteer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점차 시야가 넓어져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보이게 되었다. 바로 정원일!! 그들에서도 더운 말레이시아 날씨에 땀별에서 그들은 일했고 그 job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아니었지만 '베다니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왔다. 정기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일들처럼 그들의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애연

# 아 이 클 레이

칼라클레이는 클레이의 한 종류로서 시중에 파는 클레이보다 조금 더 가볍고 좀더 뚜렷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 촉감도 부드러워 아이들이 만지작 만지작 하기 좋다. 우리는 국내훈련 때 후원받은 칼라클레이로 베다니홈의 아이들과 함께 쿠키, 당근, 꽃, 케이크 등 여러가지를 만들고 뒤에 자석을 붙인 다음 반에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만들고 애들이 따라 하는 것도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잘 따라와주고 자기들이 직접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엔잉이라는 친구는 문기 단원과 윤무중 단원의 얼굴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기도 했다. 선택을 못받은 해애연 단원은 아주 아쉬워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클레이를 아주 신기해하고 좋아해서 클레이 수업하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재미있고 뿌듯하다!

-김진아



## 종이접기

베다니홈에서 level 4 class 아동들을 대상으로 꽃접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종이 접기 과정을 적은 종이를 준비한 덕에 이를 보여 설명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만들어야 할 7장이라는 꽃잎의 개수가 많아서 힘들어 한 아동도 있었으나, 반복되는 접기로 혼자서도 잘 따라하는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라온아피5기는 아동 한명 한명씩 말아 순서를 가르쳐주고 접기와 풍질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4 class을 지날때는 라온아피가 함께 만든 예쁜 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김지은



## 파조만들기

스리랑카팀의 소라언니에게 받은 물품, 베다니에 도착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차에, 저희팀은 파조종이를 이용한 모자이크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조를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누어 밀고감을 그린 다음 색깔을 적어, 아이들이 적혀있는 색에 맞는 색종이에서 찾아 모자이크를 하게 했습니다. 완성했을때 입체적이고 칼라풍하게 표현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준비해간 덕에 아이들과 선생님, 라온아피 5기 모두가 즐거운 수 있었습니다. - 김지은

폼클레이는 KL에서 PMY 아이들과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 마스크에 클레이를 붙이는 아주 단순한 작업은 아이들에게 적당히 재밌고 여러가지 색을 섞어서 새로운 색이 나오는 것도 아이들에게 대단한 흥미유발이 되었다. 간혹 폼클레이의 생김새를 두려워 하는 아이들과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서운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클레이 수업이 끝나고 다른 레벨의 선생님께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달라는 수업 요청까지 들어왔다. 호주 봉사자들도 클레이를 들고 왔었는데 우리가 쓰는 클레이와는 전혀 다른 냄새와 촉감에 왠지 모를 한국인의 자부심까지 생겼다. 한국산 클레이는 여기서 아주 인기 만점이다!

-김진아

# 폼 클 레이



## 월척을 낚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웃집 그룹홈 친구들, 로저 아저씨, 마주미, 크리스틴과 함께 근처 강가로 낚시를 하러 갔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섬에 도착하니 원숭이들이 우리를 습격했다. 배에서 일하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께서 자신의 섬에 온걸 환영한다며 손수 코코넛을 따 주셨다. 6대의 낚시대를 이용하여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0마리. 하지만 이것 보다 더 슬픈 건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마음씨 좋은 아저씨께서 부상을 당하셨다는 것이다. 우리 낚시대에 걸린 쓰레기를 빼주시려고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이 낚시대 바늘이 관통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아저씨의 친절함 잊지 않겠습니다.

-문기-



## 'Yoga' 생일



우리동네에는 예쁜 아이들이 참 많다. 우리가 특히 친하게 지내는 집 4남매중 13살 첫째 'Yoga'의 생일이었다. 그 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케익을 준비했다. 케익을 'Yoga'와 동네 아이들 몰래 집으로 옮기는 과정은 거의 007 작전이었다! 우리 팀이 처음으로 초대받은 동네주민 파티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파티를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고 자부한다.

- 해애언



## 도네이션

옆집 그룹홈 말콤과의 도네이션은 항상 기대된다. 도네이션은 동네 집집을 방문하며 만든 쿠키를 판매하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 쿠키를 살까'라는 반신반의 생각이 들었으나 곧 생각은 바뀌었다. 주민들은 베다니홈 친구들의 도네이션 활동에 관심을 보였고 대다수가 적극 구매하였다.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도네이션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만들었다. 내가 도네이션을 좋아하라는 가장 큰



Hari ini banyak banyak susah!!!

이유는 바로 말콤! 말콤의 말을 따라하며 나는 말콤의 팬이되었다. 다음기수가 온다면! 말콤과의 도네이션을 적극 추천한다. 여러모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해애언



## 카메룬 하이랜드

우리끼리의 첫여행! 카메룬 하이랜드!!! 2박3일! 말레이시아 날씨와 달리 고지대에 위치한 카메룬 하이랜드는 시원하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꼬불꼬불 산을 버스를 타고 올라서 도착한 숙소는 각국 나라 백팩커들의 천국이었다. 짐을 푼 뒤 첫날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패키지를 추천하는 주인 아주머니의 제안대신 우리는 우리끼리의 여행을 선택하였다. 로즈가든, 스트로베리 농장을 둘러보고 스트로베리 디저트를 듬뿍 먹었다. 여기서 문기 단원은 한화 6500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 셰이크를 주문했지만 나머지 단원들의 저렴한 디저트보다 맛이 없어서 비웃음을 샀다. 우리는 첫날의 일정이 끝나고 1시간여의 밤길을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다. 첫째날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둘째날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바로 우리의 메인 일정, 정글 트레킹! 코스는 정말 험했다. 김진아 단원은 올라가는데 강점을, 김지은 단원은 내려오는데 강점을 가졌지만, 대체로 윤무종 단원이 김진아 단원을, 문기 단원이 김지은 단원을 도왔고, 해애연 단원은 남자 단원들과 동급으로 험한 트레킹을 마쳤다! 트레킹을 끝낸 뒤 우리의 모습은 땀과 흠에 절은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는 티농장으로 출발. 히치하이킹과 우리의 다리로 그 높은 언덕을 올라 티하우스에 도착하였다. 멋진 경관을 가진 티하우스는 많은 관광객들로 이미 붐볐다. 여기서 팁은, 티하우스에 가려면 자동차나 튼튼한 체력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팀은 물론 후자를 가졌다!! 티하우스 일정이 끝나고 그 곳에서 유명한 스팀보트를 배부르게 먹었다. 여기서의 모든 스팀보트 가게는 줄을 서서 먹는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문기 단원과 해애연 단원은 경쟁이 붙어서 다른 단원들이 차를 타고 간 길을 2시간여 또 걸어서 숙소로 갔다. 이들의 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박3일의 총 여행이 끝나고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20km의 거리를 팀원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이들은 또 걸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20km의 거리를 4시간만에 돌파하고 집에 도착. 카메룬 하이랜드는 우리만의 여행이라 더욱 뜻 깊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수확은 윤무종 단원의 셀프 영상. 특파원을 능가하는 그의 영상 솜씨는 충분한 소장가치가 있다고 본다. 보고싶다면 연락을!

- 해애연





## 팡코르 아일랜드

체육선생님인 아즈미의 생일에 초대받은 우리는 아즈미, 아즈미 친구, 코라, 키란과 함께 팡코르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베다니홈에 와서 처음으로 간 여행이었고, 무엇보다도 바닷가에서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나갔다. 별다른 게임 없이도 물속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중요한 사실은 팡코르의 바다에서 지은이과 아즈미의 관계(?)는 시작된 것 같다. 저녁을 먹고 초코파이로 케익을 만들어 우리들만의 조촐한 생일 파티를 시작했다. '미놈 미놈' (마셔라 마셔라), 'Don't sleep' 키란의 목소리가 그립다. 자신의 생일에 우리를 초대해준 아즈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

-문기

## 완의와 문승이



4월, 우리가 베다니홈에 처음 와서부터 적응 하는 동안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봉사단원이었던 Vincent와 Tam이다. 이 친구들은 K.L에 있는 대학교 물리치료과에서 재학 중인데 베다니 Physio 클래스에서 우리보다 3일 먼저 와서 활동 중이었다. 그들은 낯선 곳에 온 우리들에게 말레이 로컬인으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그 중, Vincent는 자가용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를 베다니홈까지 태워주고 마치면 집까지 배려다 주는, 아주 힘들거나 귀찮을 수 있는 일을 고마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어서 상의 끝에 결국, 한국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로 하였다. 4월 6일 우리는 Vincent&Tam을 저녁에 초대하였고 그들에게 K.L에서 프로그램 할 때 성공적으로 선보였던 계란말이와 주먹밥, 그리고 쏘세지야채볶음과 K.L에서 사왔던 라면을 대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방문 후에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었고, 식사 후 열의(?)를 보이며 우리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달라고 하며 잠시나마 한국어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Vincent는 문승이라는, Tam은 완의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긴 시간 대화와 게임을 나누고 성공적인 저녁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그것은 곧 우리의 음식을 덜 보여줬다는 의견이 도출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K.L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고추장을 사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우리끼리는 마트에 들어서 이것저것 장을 본 후, 20일에 그들을 다시 저녁식사에 초대하기에 이르렀다. 메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재료로 만든 비빔밥과 해물파전이였다. Vincent와 Tam, 그리고 Vincent의 친구도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전보다 더 한국적으로 바뀐 우리의 음식에 감탄과 만족을 한 듯 보여서 뿌듯함을 느꼈다. 식사 후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와 함께 깊은 밤까지 함께 하며 얼마 후 우리보다 조금 일찍 떠날 고마운 친구들에게 성공적인 저녁식사 초대를 마치게 되었다.



- 윤무중



## Let's go Party!

4/16 스페셜

올림픽이 끝난 후 봉사자 Masumi집에서 우리들만의 파티가 열렸다.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 나라의 술을 가지고 왔는데 라온아씨는 소주를 준비하지 못해 아쉬웠다. 한국의 소주를 좋아하는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 파티에서 여러나라에서 온 봉사자 각자의 느낌, 생각,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를 더 알아 갈 수 있었다. 사실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 아닌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모국어를 쓰는 사람보다 못하는건 당연하지 않은가. 또한 영어보다 중요한건 눈빛과 맘으로 소통하는 법. 우리는 이 파티를 통해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새겼다

-김지은

## 스페셜올림픽

2011 페라주 스페셜 올림픽은 매년 페라주 지역 장애인학교 학생들이 모여 여는 올림픽으로 베다니홈을 주축으로 행사가 기획되고 진행된다. 종목으로는 달리기(100m, 200m, 500m, 25m 걷기, 400m 릴레이), 투포환,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궁던지기가 있다. 남자 단원들은 투포환 경기를 보조하고, 여자 단원들은 시상대행사보조를 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베다니홈 staff과 봉사자들이 하는 400m 릴레이이다. 올림픽 연습때 우리는 호주, 베다니홈 staff에 이어 3위를 했었다. 그래서 전력 보강을 위해 physio 봉사자 완의를 전격 영입. 1번 주자 완의, 2번 주자 무종이, 3번 주자 해언이, 4번 주자 문기. 완의의 영입은 성공적이었다. 우리팀은 5개의 팀중에 2위를 차지했다. 3년 연속 1등을 한 베다니홈 staff의 팀은 남자 주자가 3명이었으니 진정한 승자는 우리가 아닐까? 월, 수, 금요일 마다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연습한 베다니홈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문기





# WANTED

베다니움 함께하는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코라

핀란드 봉사자  
physio에서 활동함  
이중 유부녀도 있  
음



크리스틴

독일 봉사자  
1년동안 이곳에서 생활해  
서 현지인이나 마찬가지로임



윤나



알리샤



크리스티나



로저

영국봉사자  
한국인 아내를 두고있고,  
아내와 이곳으로 정기  
적으로 봉사오는 멋진  
사람

호주봉사자.  
정기적으로 1년에  
2주씩 학교에서  
옴.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림.



키란



아즈미



마수미

일본봉사자  
영어보다 바하사말레이를  
잘 구사함.  
일본에서 장애아동체육공  
부를 따로 하고 온 능력자

봉사자인줄만 알았지만 선  
생님이였음. 봉사자들과 엄  
정 친함.  
얼굴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음



탐



빈센트

빈센트와 탐, 말레이 친구들  
한국에 관심이 많고, 로컬인으  
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친구들

## Light House

Light House는 우리의 베다니홈 일정으로써 월.수 오후마다 들러서 활동을 가게 되는 곳이다. 이 곳의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이 곳은 베다니홈에서의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스페셜 아이들의 베다니홈에서의 반복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그들이 스스로 부품조립, 책갈피&카드만들기 그리고 옷개기 등등 다양한 간단한 일을 하게 만들고 상점의 오픈부터 클로징까지 그들이 하게함 으로서 사회에 적응시키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직업 재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통 그들이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책갈피나 카드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들은 불품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을 도네이션으로 팔게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자립심을 기를 뿐만 아니라, 수익금은 실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처음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였고 막상 함에 있어서 지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술에 소질이 있던 우리들이 아니라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카피와 창작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재미있게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활동이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졌다. 한달이 지난 지금, Light House의 친구들은 우리를 그들의 한 일환처럼 항상 반겨주고 많은 관심을 쏟아 준다. 보잘것 없는 우리의 미약한 활동이지만 그들의 관심에 하루하루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윤무중



## Water ball activity

베다니 홈 선생님과 봉사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에 나와 지은이가 참여 했다. 모든 행사의 진행은 Physio에서 일하는 키란이 맡았다. '푸르르 루르르 푸르르 루르르 따다'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는 warm up으로 시작 되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5명이 한 팀으로 하는 수중 배구.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마다 3번의 경기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 결론은 나의 팀은 3전 전승으로 1위 지은이 네 팀은 3전 전패로 꼴찌. 이것이 바로 개인 역량의 차이 아니겠나? 평상시에는 항상 진지하신 선생님들도 장난을 치면서 노시는 모습을 보았다. 덕분에 선생님들한테 허물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다른 봉사자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한달간의 수고를 위해 이런 시간을 만든 베다니홈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다.

-문 기



## 인디안 페스티벌



문기, 밥사다!



문기, 김지은, 해애언 단원이 밥내기를 했고, 단방에 문기 단원이 졌다. 셋은 동네의 아주 맛있는 중국 음식점으로 출발! 셋이서 5가지 메뉴를 시켜서 매우 배부르게 먹었다. 금액은 한화로 2만원가량. 평소 돈을 아끼는 문기 단원은 메뉴선택도 실패했다며 투덜댔지만 김지은 해애언 단원은 아주 만족한 식사였다.

-해애언



4월 18일, 우리는 봉사자들과 함께 인디아 페스티벌을 구경하러 갔다. 인디아 페스티벌은 1년에 한번, 한 주동안 열리는 힌두교 축제인데 운 좋게도 우리는 베다니홈에 머무는 동안 축제를 구경할 수 있었다. 베다니홈의 봉사자들과 함께 만남을 약속하고 타운으로 나가게 되었다. 타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힌두교의 전통 복장의 사람들로 붐볐고, 타운에 도착했을 때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었다. 타운의 중심가 전체가 천막으로 이루어진 상점들로 이루어진 듯 했고 중간중간에 전통의식 행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축제의 느낌은 아주 소란스러움 그 자체였다. 상점 곳곳에 있는 스피커들은 볼륨의 제한 없이 최대치로 틀려져 귀가 아팠고, 아주 많은 인파로 인해 매우 복잡했다. 거기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식사와 음식거리들, 물, 음료 등을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먹고 난 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바람에 길거리는 아주 지저분해졌고 더럽혀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축제에 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아닌가 싶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몇 배는 무거운 의식 도구를 몸에 고정시키고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및 구경하는 사람들, 사원에서 의식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에 함께 참여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축제 내내 한국에서는 경험치 못한 무질서함에 다들 힘들어했고 이런 경험은 한 번이면 만족할 만 하다고 느끼게 된 현지에서의 축제 경험이 되었다.

-윤무중

# H O M E

우리는 3월 29일에 PERAK에 위치한 Bethany Group Home에 도착을 했다. 도시를 떠나고 우리를 챙겨주던 여러 스텝들을 떠나고 제공해주는 아침과 청소부와 에어컨을 떠나오게 되었다. KL에서는 너무 편하게 지냈지만 이젠 모든 것들에 안녕하고 말레이시아의 더위와 온갖 벌레들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만 가는 빨래와 청소에 맞서야 했다. 그룹홈에는 마당도 있고 앞에는 마을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공터도 있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가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물이 자주 끓기고 한번씩 전기도 나간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맥가이버 옆집아저씨와 베다니홈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집안에 들어오는 거대한 바퀴벌레, 비오는 날 화장실에서 만나는 개구리, 벽을 타고 들어오는 도마뱀, 이제는 가족 같은 온갖 날벌레들과 동거해야만 했다. 우리의 방을 소개하자면 화장실이 있는 마스터룸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가위바위보 끝에 김지은양과 김진아양이 마스터룸을 차지했고 해애언양이 독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끼리 서운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음부터 집안일을 각자 돌아가면서 분담하게 되었다. 점점 우리끼리의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이웃도 둘러보게 되었다. 우리 옆집에 사는 그룹홈 아이들과 한국에서온 낯선 한국인을 신기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동네 아이들을 만났다.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배드민턴을 칠 때 옆에서 같이 치다가 친해지게 되어 지금은 매일매일 저녁마다 만나서 노는 친구가 되었다. 문기 단원은 저녁마다 아이들과 맨발로 축구를 해서 우리가 말레이판 맨발의 꿈이라며 장난을 쳤다.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하다 보니 하루는 사건이 터졌다. 얼마 전 Yoga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윤무중 단원의 지갑에서 한화 약 2만원을 가져갔다. 며칠 뒤 yoga가 미안하며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지만 그 뒤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윤무중군의 관대함으로 다시 친구가 되었다!!! 베다니홈에서의 오전일정이 끝나면 우리는 오후 자유시간 동안 우리끼리 요리도 해먹고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하고 독서도하며 바쁘게 보내왔다. 벌써부터 이집을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쉽다.



## 오늘은 Pig Day!

4월 중순경에 우리에게서 황금 연휴가 있었다. 그 중 19일을 우리만의 '피그데이'로 선포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하루 종일 집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서로를 대접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인디아 페스티벌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장 큰 마트를 둘러서 장을 보았다. 지은이는 해물파전, 애연이는 고추참치, 문기는 고추장찌개, 진아는 스파게티, 그리고 무종이는 고기를 굽기로 했다. 피그데이 당일 아침부터 우리는 분주하게 자신이 맡은 음식을 담당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아침 겸 점심 때에는 돼지고기와 고추장찌개, 고추참치, 해물파전을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생각 외로 우리끼리 만든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 특히 해물파전이 아주 인기가 좋아서 다음날에 있던 Vincent와 Tham의 저녁초대에도 쓰이게 되었고, 5월에 있을 베다니홈 푸드페어 때의 메인 음식으로 쓰기로 합의를 보기도 하였다. 아주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 친목을 다질 겸 게임도 하고 매일 하는 거지만 수다도 신나게 떨게 되었다. 그리고 저녁 또한 스파게티로 포식을 하고 피그데이 하룻동안 집안에서만 생활을 마무리 하는 날이 되었다. 누구도 관여 없이, 어디를 떠나는 것이 아닌 단순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게 되는 하루였고, 그만큼 서로의 친밀도도 나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하루 주방장이 되어서 챙겨주는 즐거운 날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운 고향 생각으로 힘든 서로에게 음식을 해줌으로써 서로 위하는 마음을 키웠던 이 날은 아마도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머무는 동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피그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다.



### KITCHEN 활동!

여자단원들은 호주 단체 봉사자들이 오면서 부엌에 일손이 딸리자 부엌에 조금씩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호주 봉사자들이 가고 난 후에도 MR. KOO의 부탁으로 매일 오전마다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가 너무 일을 잘해서 아예 전담을 시킨 것이라며, 나중에 집에서 예뻐 받으려면 지금 열심히 배워놔야 한다면 더욱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점심에 우리가 열심히 다진 야채가 나오면 왠지 더 맛있고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살이 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서 빨리 말레이시아 음식을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김진아



